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지금 나는 해발 1350m,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 아래 포카라의 한 언덕 위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눈을 들면 8000m 14좌 봉우리 중 다울라기리와 안나푸르나, 마나슬루가 한눈에 펼쳐진다.

이곳 포카라는 사시사철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없고 눈도 오지 않는다. 여름이면 넉넉한 비가 대지를 적시고 대지는 풍요롭다. 앞에는 설산이 북풍을 막아 주고 뒤로는 싯다르타 태자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이 직선거리 약 100㎞ 지점에 자리한다. 앞에는 히말라야, 뒤에는 부처님 탄생성지. 이런 터가 세상에 있었을 줄이야. 설산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노라면 산이 묻는다.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하는가."

서울 홍대에서 3년. 도심 한복판에 선원을 세우고 젊음의 거리에서 한국을 찾는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했다. 이제 홍대선원에서 움튼 작은 씨앗을 안나푸르나 포카라에서 룸비니를 잇는 163㎞ 순례길로 확장하려 한다.

13년 전. 율원을 졸업하고 다음 수행의 방향을 찾던 시절,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차마고도'는 내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 '저 길을 걸어야겠다.' 처음 계획은 곧장 룸비니로 향하는 것이었으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여행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포카라를 먼저 가 보라"고. 그렇게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서 반년을 머무는 동안 도반 도명 스님을 히말라야로 불러 함께 안나푸르나

포카라~룸비니 163㎞ 길서 나를 만나다
히말라야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
진리 찾는 이들의 길로 되돌려 놓으려 해

산길을 걸었고, 어느 날 뜻을 모았다.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걸어가자." 그렇게 시작된 163㎞의 여정은 내 삶에서 가장 환희로운 수행이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수행자·순례자였다. 발걸음마다 호흡을 새기고, 만나는 이들과 눈을 맞추며 합장했다. 그 길은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길이었다. 아마도 2700년 전, 싯다르타 태자 또한 이 길을 걸었으리라. 12년이 지난 지금, 시절인연이 다시 나를 히말라야로 이끈다. 포카라 언덕 위에 작은 터를 잡고, 한국불교의 베이스캠프를 세우려 한다. '히말라야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다.

이 일은 단순한 트레킹 코스 개발이 아니라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163㎞를 수행길·순례길로 복원하는 일이다. 글로벌 명상 베이스캠프를 조성하고 리트릿 공간과 순례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마련하며 유기농 농장과 한글학교까지 세워 이곳을 순례자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고자 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히말라야를 온몸으로 느끼고 길을 걸으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다리를 놓고자 한다.

많은 이들에게 히말라야는 멀고 두려운 곳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대부분 가 보지 않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 막상 한 걸음 내디디면 안개는 걷힌다. 수행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걷고, 호흡의 리듬을 타며,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이 순례길 복원 프로젝트는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2700여 년 전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나고 걸었을 그 길을 다시 살려, 진리를 찾는 이들의 길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길에서 다시 자신을 사랑할 힘을 얻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까. 이 길을 더 많은 도반과 함께 걷고 싶다. 히말라야 순례길 프로젝트. 포카라에서 룸비니까지 163㎞. 길 위에서 나를 만난다.

아침 탁발길에서 붓다 탄식하다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10년이나 이어진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50일을 다룬 서사시다. 10년 전쟁을 끝내려니 그 50일의 살육전은 어마어마했다. 특히 트로이 명장 헥토르와 그리스 명장 아킬레우스가 맞붙기까지 정황은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파죽지세로 적군을 찔러 죽였다. 많은 시신들이 강물에 던져지자 살육에 넌더리가 난 강의 신은 시신들을 강둑으로 밀어냈고 아킬레우스를 삼키려고 몸부림을 쳤다.

〈일리아스〉를 읽는 내내 강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로 켜켜이 쌓인 시신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도 저마다의 이름을 가진 귀한 목숨이었을 텐데 그냥 시신이라 불리고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목숨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며, 가족의 애타는 절규는 또 얼마나 컸을까.

독일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어떤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에서 성문이 일곱 개나 되는 테베를 누가 건설했는지 묻고 있다. 수많은 역사책에는 왕의 이름만 나오는데, 설마 그 왕들이 손수 돌덩이를 운반해 왔을 리는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도 가을밤,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

역사 속 끊이지 않는 전쟁과 살상
명분 내세워도 전쟁은 탐욕 때문
귀한 목숨 앗은 이란 전쟁에 암울

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있다. 시인이 막연히 떠올리기만 하지 않고 소리 내어 불러 보는 이름들은 대체로 내 옆에 살아 있었고, 그래서 내 목숨을 여태 살게 해 온 목숨들이다. 그 이름 하나하나는 한 생명의 역사다.

아침마다 사람들의 마을로 빈 발우를 들고 탁발하러 내려오는 붓다는 고도의 정치적 인물이었다.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자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탁발승이 됐지만 아침마다 귀에 들리는 소문은 전쟁과 살상 이야기였으리라. 그 시절도 수많은 나라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전쟁을 쉬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오죽하면 탁발을 마치고 돌아가는 붓다가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죽이지 않고 죽이게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마왕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고서 그대가 통치자가 되면 그리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붓다는 거절한다. 황금으로 만든 산 두 개를 사람들 모두에게 안겨 줘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전쟁의 시작은 탐욕이다. 한 인간의 탐욕을 잠재우면 다른 인간의 탐욕이 커진다. 탐욕 앞에서는 생명도 속수무책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전쟁의 기운이 늘 아슬아슬하게 감돌고 있는 지역에서 이 사태의 추이를 예견하자면 어둡고 무겁고 끔찍하다. 한 사람을 죽인 범인을 향해 살인자라 외치는데, 귀한 목숨 하나하나를 '많은 시신들'이라는 이름으로 없애 버린 권력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붓다가 나지막이 탄식하고 있다.

社 說

승가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

올해 사찰승가대학 졸업식 풍경은 여러 단상을 남긴다. 조계종 주요 사찰 승가대학 졸업생이 적게는 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에 그쳤다. 한 학년 졸업생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시대적 시대 흐름'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승가교육 체계 전반을 성찰하라는 엄중한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연 500명에 달하던 조계종 출가자는 2000년대 들어 300명대로 줄었고, 이후 200명대를 거쳐 최근에는 연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본교육기관은 사찰승가대학을 비롯해 기본선원,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16곳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승가교육체계를 정립하며 마련된 틀로, 충분한 출가자를 전제로 설계된 구조다.

승가대학 졸업생 한 자릿수 수년 지속
기본교육기관 조정·구조전환 논의해야

출가자 감소가 가시화된 2000년대 초반부터 학인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원 하한선을 설정해 교육기관을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후 여러 차례 기본교육기관 조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사이 현장의 부담은 고스란히 누적돼 왔다.

다행히 희망의 조짐도 있다. 최근 조계종의 소년출가제도 도입, 단기출가학교 운영, 종립학교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10·20대 출가자 비율이 40%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출가자 수의 반등 가능성만으로 문제를 낙관할 수는 없다. 발심한 청년들이 수행과 학문, 포교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승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교육의 질을 균질하게 담보하기 어렵고,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한계가 있다.

승가교육은 종단의 근간이다. 기본교육은 비구·비구니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인천의 사표로 설 수 있는 인격과 원력을 닦는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이 기관별 입학생 확보 경쟁 속에서 운영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간 제기돼 온 기본교육기관 조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사찰승가대학 수를 조정해 기본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찰승가대에서 기본과정을 마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교육기관 개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사찰과 기관의 역사와 전통, 지역적 상징성을 간과할 수 없기에 단순한 통폐합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미룬다면 결국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조계종이 3원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조직을 개편한 지금이야말로 교육기관 개편을 논의할 적기다. 종단이 승가교육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와 인재를 집중 투입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 자릿수 졸업생이라는 현실을 그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승가교육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3월 1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대한불교대각종

법인등록증 재교부 안내

199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사이 대한불교대각종에 입종하신 사.암.께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대각종 총무원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각종 법인등록증과 사원등록증을 재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연락전화 (41)832-1188, 832-1187

불기 2570년(2026) 2월 5일

사)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